

偽計譚 研究*

許 椿**

차 례

- I 서론
- II 본론
 - 1. 위계사의 개념
 - 2. 위계담의 내용 검토
 - 가. 북미 원주민의 위계담
 - 나. 한국의 위계담
 - 3. 한국 위계담의 특성
- III 결론

<국문초록>

위계사는 설화에서 유래된 인물로 문화영웅 역할을 하기도 하는 이중적 성격의 경계인이다. 위계사는 남을 속여 이득을 얻지만, 탐식과 넘치는 성욕을 주체하지 못해 자신이 쳐 놓은 덫에 자신이 걸리는 일이 많아 듀프(dupe) 역을 하기도 한다.

설화의 내용은 인류 공통적인 것이지만, 민족(부족)이나 지역 상황에 맞게 변용되어 나타난다. 어떤 동물이나 인간상에 대한 好否에 차이가 나

* 이 논문은 2002년도 제주대학교 발전기금 국외파견 연구지원계획에 의하여 연구되었다.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는 일도 수용 정서와 사회 상황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설화에 나타난 위계사를 통해 이 차이점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위계사가 차지하는 특수성도 알 수 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위계사 연구가 시작된 북미 원주민 설화의 대표적 위계사인 코요테의 여러 행적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설화의 호랑이와 문헌설화 몇 편을 두고 그 성격을 대비해 보았다.

코요테와 호랑이에게서 느끼는 감정은 크게 다르다. 코요테는 그들에게 친근감을 주지만, 호랑이는 우리에게 친밀감을 넘어 경외감이나 공포감을 준다. 그러면서도 호랑이가 위계사로, 가해자보다는 주로 듀프르 등장하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호랑이는 권위 있는 강자를 상징하지만 탐욕을 주체하지 못해 제 피에 속기도 잘 해서, 위계사의 속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흔히 전형적인 위계사로 보는 코요테 또한 자주 속는다. 코요테의 문화영웅적 측면이 우리나라의 호랑이나 토끼에게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전해지는 신화가 풍부하지 못한 상황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신화에서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인간에게 문화적 혜택을 주기도 하고, 민담에서는 희화화하여 단순한 장난꾸러기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데 근친상간 같은 性的인 금기 위반을 통해 정화작용을 일으키는 일은 보기 어렵다. 우리의 고려조는 불교 사회, 조선조는 유교 사회라 그런지 성적인 면에서 크게 放逸하지는 않다.

문헌설화에서도 아전이나 서민은 지략으로 상대를 공격하고 목적을 이룬다. 이들은 단순한 웃음보다 풍자를 통해 권세 있는 상류층을 비판한다. 이는 아마도 북미나 유럽보다 신분의 차이, 士民 즉 班常의 계층이 더 뚜렷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중간층의 신분이라 할 방자, 아전, 기생, 식객, 광대 등은, 이중성이라는 위계사의 특성과 맞물려서 그 특성을 잘 보여준다. 김 선달, 방학중 등에서 보듯이, 서민층을 상대로 잔인할 정도의 위계를 써서 이익을 취하기도 하는데, 語戲를 이용하는 일이 잦다.

- 핵심어: 위계사, 듀프, 문화영웅, 탐식, 성욕, 어희, 풍자, 비판성

I. 序論

설화에서 유래된 인물인 僞計師(trickster)¹⁾는 文化英雄 역할을 하기도 하는 二重的 性格의 境界人(marginal man)으로, 어떤 식으로든 상황을 마무리짓는 중재자(mediator)이기도 하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위계사는 아시아(스サノオ, Vishnu, Maui), 인도(Krishna), 유럽(건달(picaro), 여우, Loki), 아프리카(Eshu, 토끼(Chibuga), 거미(Ananse)), 북미(토끼, 까마귀, 거미, coyote, Iktomi(거미 인간(Spiderman, Spider imp)), Glooskap, Wakdjunkaga) 나아가 그리스 로마 신화(Hermes, Prometheus, Mercury) 등 전 세계 설화에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본격적인 위계사 논의의 출발점이 된 북미 원주민 설화의 코요테 이야기를 우리나라의 동물담과 대비하고, 이를 인간으로 확대해 보겠다. 위계담의 핵심인 위계사를 조명해 보면 그 이야기의 성격을 잘 드러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문학-설화 속의 위계사를 통해 그 특성의 일단을 확인해 보려는 것이 이 작업의 목적이다.

신화를 포함한 설화는 고정적인 것이라기보다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이야기다. 설화 특히 신화를 인간 무의식의 산물로 보든 그렇지 않든, 신화적으로 또는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든 간에, 그 상징 체계와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야 하는 점에 유의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 보았다.

북미 원주민의 위계사 설화는 주로 에르도스(R. Erdoes)와 오르티즈(A. Ortiz)가 발췌·정리한 자료²⁾를, 우리나라 설화는 「韓國口碑文學大系」³⁾를 비롯한 채록집과 문헌설화를 선별한 「李朝漢文短篇集」⁴⁾을 대상으로 했다. 북미의 코요테 설화와 동물이 주역이 아닌, 조선조의 민담을 직접적으로

1) Cf. 許椿, “古小說의 人物 研究-仲裁者를 中心으로-”, 연세대 박론, 1986. p. 5.

2) R. Erdoes and A. Ortiz (Selected and Edited), *American Indian Myths and Legends*, Pantheon Books, New York, 1984.

3) ——— 語文研究室 編, 「韓國口碑文學大系」(이하 「大系」),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1989.

4) 李佑成·林煥澤 編譯, 「李朝漢文短篇集(上, 中, 下)」, 一潮閣, 1973~1978.

같은 위상에서 거론하기는 조심스럽다. 그래서 먼저 북미와 우리나라의 동물담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겠다.

II. 本論

1. 위계사의 개념

19C 후반부터 쓰인 인류학 용어인 위계사는, 동물인간(animal-beings) 이거나 동물의 이름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종종 인간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 위계사는 도덕적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탐욕과 호색을 그대로 표출하며, 僞計(trick)로 상대를 속보이지만, 꾀 어리석어서 종종 스스로의 꾀에 빠지기도 한다. 신화에서는 인류에게 유익한 것을 전하는 문화영웅(culture hero)인 경우도 많은데, 자연히 신의 對抗者로 신의 계획을 방해하기도 한다. 그 민족에게 문화의 贈與者로 간주되는 문화영웅은, 그의 민족을 위하여 해, 불, 여름을 훔치거나 바람을 조정하고, 사냥한 고기를 방출하고, 인간에게 곡물을 비롯하게 하고, 儀式을 제정하고, 위험한 괴물에게서 세상을 구하기도 한다. 이런 행동은 대부분 인간을 위한 의도적인 것이라기보다 자신의 성격에서 비롯한 것이다.⁵⁾ 어느 의미에서는 위계사는 거의 늘 禿의 편에 선다. 그러면서도 아메리카 원주민과 아프리카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대개 동물로 등장하는 위계사는 일반적으로 인간 혹은 특정한 개인에게 도움을 주는 후원자인 호의적 위계사가 대부분이다.⁶⁾

위계사는 메소포타미아(Mesopotamia) 시대 진흙에 새겨진 길가메시(Gilgamansh) 서사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길가메시는 아마도 헤라클레스와 머큐리 신, 다른 그리스 신들의 직접적인 조상이며, 중세 시대에는

5) 위계사와 문화영웅의 제 측면은, 許椿, “濟州島 巫俗神話의 文化英雄考”(『濟州島 言語民俗論叢』, 濟州文化, 1992)에서 검토한 바 있다.

6) G. Jobs, *Dictionary of Mythology, Folklore and Symbols*, The Scarecrow Press, Inc. 1961. p. 202, p. 524.

어릿광대(court jester)가 되었다. 북미 원주민에게는 어릿광대가 Coyote, Raven, Mink, Old man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위계사는 교활하기는 하지 만, 영리한 것과는 다르다. 위계사의 특징은 어느 원시시대나 거의 똑같이 서 마치 같은 이야기의 변이형 같지만, 이야기가 서로 너무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나타나므로 전파나 이동은 불가능한 듯 보인다. 한 예로 'Buttocks Watcher(P. Radin, 1956:16~17, Wakjunkaga cycle에서)' 같은 이야기를 보일 수 있겠다.⁷⁾ 위에 든 것처럼, 위계사는 Coyote, Raven, Mink, Blue Jay 같은 동물(특히 鳥類) 외에도 두목, 보스(Boss), Old Man, Veeho(Vihio), Whisky Jack 등의 半人間도 있다.

위계사는 兩義的 존재이며, 두 對立項의 중간에 위치하는 중재자다. 그는 신성하기도 하고 어릿광대 같은 존재이기도 한 복합성이 있으며, 俗과 聖의 양분법을 강조하지 않는다. 위계사는, 거대한 상대를 이기며 인간에게 명백한 동일시의 만족감을 허용하는 작은 창조자로서 청자(인간)의 불충분함이 투영된 것이다. 북미 신화의 위계사는 대부분 半人半獸의 존재다. 위계사는 탐욕스럽고 색정적이고 모방적이며, 어리석고 허식적이고 기만적이다.⁸⁾ 그렇기 때문에 위계사는 권위에 대한 반란자고 모든 금기를 깨는 자다.

바록 에이브럼스(Barbara Babcock-Abrahms)의 견해를 빌리면 우리는 위계사의 세 범주(英雄的, 惡漢的, 痴愚的)의 사회적 위상에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데,⁹⁾ 후대에 오면 세 성격이 섞이지만, 신화에서의 위계사는 어디까지나 신성성에 비중이 두어진다. 위계사는 疎外者(outsider) 역을 하는 경계인(marginal man)이다. 따라서 그는 새로운 사회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문화의 갈등이 존재하는 장소과 시간에 나타나는 개성적 유형이

7) J. Greenway, *Literature among the Primitives*, Folklore Associated, Hatboro, Pennsylvania, 1964. pp. 71~73. passim.

8) M. Leach ed., *Standard Dictionary of Folklore, Mythology and Legend* (Volume 2), New York, Funk&Wagnalls Company, 1950. pp. 1123~1125. ff.

9) B. Babcock-Abrahms, A Tolerated Margin of Mess: The Trickster and His Tales Reconsidered, *J.F.I.* Vol. XI, 1974. p. 149.

다.¹⁰⁾ 그러므로 위계사는 이중적 성격과 兩價値性(ambivalence)으로 인해서 生/死, 正/邪, 優/劣, 鬪爭/勝利 등의 모든 대립에 조정자·화해자가 된다. 대립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자연히 二元性을 띠게 된다. 이러한 양면성은 위계사의 기본적인 성향에서 기인한 것으로, 라딘(P. Radin)의 견해가 참고된다.

라딘은 위네바고(Winnebago) 족 설화의 네 英雄群을 제시하며, 그 중 하나인 위계사를 未分化된 리비도(libido)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풀이하여 幼兒的 心性, 유아와 성인이 기묘하게 혼합된 행동, 飢餓와 性같은 원초적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목적, 잔인하고 냉소적이며 비정한 성향으로 풀이하고 있다.¹¹⁾ 근본적으로 파괴적 속성을 지닌 위계사에게는 가치, 도덕, 사회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의 욕망에 오히려 희생당하지만 동시에 창조적이다. 헤더웨이(Hathaway)¹²⁾가 ‘잉크토미(Inktomi=Iktomi: Lakota족의 위계사), 코요테, 마우니, 에슈, 로키’를 ‘세상의 모든 창조 신화’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니, 위계사의 기본적 성격이 창조에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위네바고 족 설화에서는, 태초에 대지의 창조주가 각각의 종에게 고유한 주거지를 할당했는데 엄청난 방귀로 주거지들을 날려 창조주의 계획을 흐트러뜨린 건 바로 위계사인 와크준카가(Wakdjunkaga)다. 와크준카가는 자신을 태워 준 콘도르(condor)를 오히려 속이 빈 나무 속에 빠뜨리고, 자신을 살쥔 너구리라고 속여 마을 여자들이 알몸으로 마을에 가게 만든다. 또 여장으로 세 친구와 잠자리를 같이해서 임신한 후, 마을로 가서 추장의 아들과 결혼하고 아들도 낳는다. 속임수로 코요테에게 창피를 줘 마을을 떠나게 하는 것도 와크준카가다.

10) E. V. Stonequist, *The Marginal Man: A Study in the Subjective Aspects of Culture Conflict*, Univ. of Chicago, 1930. p. 74.

11) P. Radin, *The World of Primitive Man*, New York, 1957. pp. 310~313. 네 群은 위계사, 산토끼, 레드 혼(Red Horn), 쌍둥이다.

12) N. Hathaway, *The Friendly Guide to Mythology*, 2002. (신현승 옮김, 『세계 신화 사전』, 세종서적, 2004)

그러나 비정상에 대한 태도는 언제나 兩價值的이다. 정상적인 것은 중립적인 것이고 비정상적인 것은 도덕적으로 선악이라는 양극단을 포함한다. 이 사상은 쉽게 말하면 더러움/깨끗함, 불건강/신성함, 힘/무기력 등의 짝진 대립에 의해 표현되는데, 이들은 개략적 等價物이다.¹³⁾ 그렇기 때문인지 위계사를 대하는 대한 관점은 긍정과 부정이 엇갈린다. 즉 열등한 성격들의 축소판으로 보거나 영웅의 전형으로 간주한다. 위계사가 근본적으로 神性인지, 영웅이 신의 수준으로 격상된 것인지 아니면 위계사가 원래 양면의 속성을 지닌 신성이었던 것인지도 의문이다.¹⁴⁾ 인간의 잠재의식은 의식보다 더 통찰력 있는지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생각을 전달할 수단으로 위계사 이야기를 만든 고등 종족이 존재했는지 하는 문제의 논의도 있다. 어찌 보든, 불예측성과 유동성을 보여주는 위계사가 인간에게 내재한 보편적 원형임에는 이견이 없을 듯싶다. 물론 서구의 기본 사상체계인 이분법에 대한 거부감이나 문화적 진화론 논란과는 별개로 하는 말이다.

그리스 신화를 생각해 보면, 굳이 제우스가 만들었다는 판도라(여자), 파괴적인 탐욕과 생산적인 잉태를 동시에 구현하는 여자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제우스의 대를 이을 어린 아들을 죽인 죄로 벌을 받은 티탄의 재에서 태어난 게 인간이니, 인간에게는 원초적으로 상반된 이중성인 동물성과 신성, 신성함과 악함이 내재되어 있다.¹⁵⁾ 이들은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드러내기 때문에 오히려 친근하게 느껴진다.

신화적 영웅은 신으로부터 인간에게 문화를 가져다 주는 문화의 전달자인 문화영웅이고 창조자나 변형자(transformer, shapeshifter)인데 이들은 대체로 위계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런데 차차 위계사의 문화영웅적인 성격이 퇴색되어 가면서 단순히 상대방을 속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서 민담화한다. 이들은 多義性(ambiguity), 역설(paradox), 모순어법(oxymoron)을 통해 그 존재를 확인해 준다. 근대의 바보 예찬, 바보문학 등도 이와

13) E. Leach, *Social Anthrop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p. 219.

14) P. Radin, *The Trickster: A Study in American Indian Mythology*, Greenwood Press, 1956. p. 125.

15) 이진성, 「그리스 신화의 이해」, 아카넷, 2004. pp. 135~146. passim.

맥을 같이한다. 바보 이반(Ivan), 한스(Hans) 등은 신화성이 제거된 위계사의 殘影으로 볼 수 있겠다.

神性顯示(hierophancy)와 僞計는 공통의 기반 위에 있고, 위계사는 삶과 죽음의 전형적인 조정자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메리카 인디언에게 특히 두드러진다고 조사되었지만, 우리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를테면 배뱅이굿¹⁶⁾에서 死靈과 生者の 만남과 확인은 위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건달 청년은 위계를 통해 신성현시를 보여 주니, 위계사의 전형적인 예라 하겠다.¹⁷⁾

지나친 일반론에 치우친 결점이 있고 서구의 이분법적 사고와 구조주의의 연관성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신화를 남성 대 여성, 삶 대 죽음 같은 상반 관계를 알고자 하는 시도로 보고, 북미 원주민 설화의 위계사인 까마귀와 코요테(coyote)의 행동을 해석한 레비-스트로스(C. Lévi-Strauss)의 관점¹⁸⁾이 이 글의 논지에 비교적 유용하겠다. 물론, 실제적으로 어디에나 존재하는 위계사는 썩은 고기를 먹는 자라는 레비-스트로스의 기본적인 가정은 코요테나 까마귀 이야기에는 잘 맞지만 계속 당근을 먹는 토끼 이야기에는 맞지 않으니, 위계사를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려는 노력에도 얻은 결과는 별로 없다는 지적¹⁹⁾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코요테(이 짐승은 죽은 고기를 즐겨 먹는다.)가 초식 동물과 포식 동물의 중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의 안개와 같은 것이며, 전쟁과 농경 사이의 머리 가죽 같은 것이고(머리 가죽은 전쟁의 수확물이다.), 야생 식물과 재배 식물 사이의 감부기와 같으며(감부기는 재배 식물 위에서 생육하나 야생 식물에 가깝다.), ‘자연’과 ‘문화’ 사이의 의복과 같고, 사람

16) 李殷官 唱本 (金東旭, 「韓國歌謠의 研究」, 乙酉文化社, 1961. 所收)

17) 주 5) pp. 288~289.

18) C. Lévi-Strauss, "The Structural Study of Myth",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1955.

————— · 김진옥 譯, 「構造人類學」, 종로서적, 1983. 등.

19) 주 7) p. 86.

이 시는 동네와 황무지와와의 사이의 쓰레기와 같으며, 부뚜막(땅바닥에 있다)과 지붕(하늘을 상징한다) 사이의 재와 같은 複義的 성격의 존재다.²⁰⁾ 그래서 코요테는 진지한 문화영웅의 이야기에서 등장하기도 하고 그 자신이 창조자이기도 한데, 위계사의 모험은 그 우둔함과 재기로 해서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코요테 같은 위계사는 유익한 문화영웅, 영리한 사기꾼, 바보의 세 役으로 나타난다.²¹⁾ 거대한 남근을 소유한 코요테는 괴물 위슈프시를 죽이고 그 시체로 태평양 부족들을 만듦으로써 인간의 창조주가 되었다. 또 노동, 질병, 죽음, 陰毛, 유럽 사람 같은 부정적인 것뿐 아니라 성교의 쾌락도 주었으니,²²⁾ 이를 악의로만 풀이할 수는 없다. 힌두(Hindu) 신화의 僞計神인 로키(Loki)도 그의 자선과 박애의 이상한 결합에서, 또 악의 없는 재앙과 파괴적인 적의에서 코요테와 궤를 같이한다.²³⁾

코요테는 가끔 여자로 가장하여 남자와 결혼하기도 하니 兩性的이며, 값비싼 작살이나 낚시를 훔치기 위해 자신을 물고기로 바꾸어 변신하기도 한다. 코요테는 고정된 역할이나 성격을 부정한다. 코요테는 먼 옛날의 원초적 창조성을 대변할 뿐 아니라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儀式을 상기시켜 주고, 그를 격양 속에서 만나도록 환기시킨다.²⁴⁾ 세상을 창조한 신이 처음에는 모든 동물들에게 똑같은 지위와 힘을 부여했다.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든 후, 인간에게 동물들의 우열을 가르라고 했다. 이때 코요테는 제 궤에 넘어가서 코앞만 볼 수 있도록 하니 오히려 모든 동물 중 가장 약한 동물이 되었다. 이에 코요테는 신[Kareya]에게 빌어 다른 동물보다 더 교활하고 잔꾀에 능하게 되었다고 한다.²⁵⁾ 코요테가 인간을 속이고 괴롭히기도 하는데, 코요테가 2번이나 속이는 인간은 白人이다.²⁶⁾ 독립적으로 살

20) C. Lévi-Strauss · 김진옥 譯, op. cit., pp. 213~215. passim.

21) S. Thompson, *The Folktale*, The Dryden Press, New York, 1946(AMS Press, 1979). p. 319.

22) 주 12) p. 78. f.

23) G. S. Kirk, *Myth-its meaning and functions in ancient and other cultur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0. p. 207.

24) 주 2) pp. 335~336.

25) Ibid., pp. 382~383. How coyote got his cunning.

아오던 북미 원주민 부족들에게 이주민인 백인은 그들의 안식처를 힘으로 뺏은 침략자다. 이 설화는 코요테의 성격과 위상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상황을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페르세우스(Perseus) 이야기는 강한 민담 성분이 있는 반면 아메리카(America)의 많은 위계사 이야기는 때때로 신화적 목록과 합축을 한다.²⁷⁾ 그러므로 북미와 우리나라의 위계담을 대비할 때는 이 점을 감안해야 하고, 위계사의 공통성(commonness)과 지역(민족)에 따른 독특성(uniqueness) 사이에서 균형 감각을 잃지 않아야 한다.

2. 위계담의 내용 검토

가. 북미 원주민의 위계담

비를 맞아 몸이 젖어 언 코요테는 친구 익토미를 시켜 바위를 덮어줬던 자신의 담요를 도로 가져가려 하니 바위가 거절했다. 그래도 담요를 가져가니 바위가 코요테를 죽이려고 굴렀다. 거미 인간 익토미는 바쁘다고 도망가 버리고, 코요테가 물로 피하니 바위도 헤엄쳐 따라가 코요테를 깔아 납작하게 만든 후, 담요는 결국 바위가 도로 가져갔다. 농장주가 지나가다가 납작해진 코요테를 보고 좋은 양탄자라면서 가지고 갔는데, 코요테는 겨우 도망쳐 나왔다.(Erdoes and Ortiz, pp. 337~339, Coyote, Iktome, and the Rock) 코요테는 바위에게 호의로 담요를 주었다가, 자신이 필요하다고 도로 가져가려다가 죽을 고비를 넘긴다. 코요테의 즉흥성과 우쭐대는 행동을 보여준다. 말미의 언급대로, 항상 마음으로 寬大히 하고 혹시 준 게 있다면 영원히 주라는 교훈을 이야기하는 데는 이런 성격의 코요테가 적합했을 것이다. 서아프리카 Yoruba 족의 위계사 Eshu가 각 면이 빨강, 하양, 초록, 검정인 모자를 쓰고 있었다. 한 농부가 다른 농

26) Ibid., pp. 369~371. Coyote gets rich off the whitemen.

27) Cf. 주 23) pp. 32~207.

부에게 흰 모자를 쓴 늙은 노인을 봤냐고 묻자, 농부가 하얀색이 아니고 빨간색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Eshu가 모자를 보여주며, 그들은 싸울 수밖에 없지만, 나는 골칫거리를 만드는 걸 좋아한다고 했다. 농부들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보았기 때문에 사이가 틀어졌다. Eshu의 모자 색은 세계의 네 방향이다. 네 감각의 증거들을 믿지 말라는 것이 이 설화의 교훈이다.²⁸⁾ 이처럼 위계담은 청자를 즐겁게 할 뿐 아니라 교훈도 준다.

익토미와 코요테는 별 쓸모 없는 게으름뱅이다. 코요테가 익토미의 아내를 희롱하다가 肝을 먼저 먹은 익토미의 아내에게 속았다.(Erdoes and Ortiz, pp. 339~341, What's This? My Balls for your dinner?) 넘치는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오히려 속아 넘어가는 듀프(dupe)²⁹⁾로서의 코요테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당연히 자신이 이길 줄 알고, 내기에서 이긴 자가 상대의 아내를 취하기로 하고 오소리와 내기를 한 코요테는 나중에야 자신의 꾀가 실패했음을 알았다. 그는, 오소리와 자며 밤새 아내가 내지르는 고통의 비명을 들어야 했고, 다음날 아내가 '네 경쟁 실패 때문에 난 네 어리석음을 보상해야 했다!'고 외치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Erdoes and Ortiz, pp. 368~369, Coyote's Rabbit Chase) 늙은 아내의 성적 매력이 다하자 젊은 여자를 찾아 나섰다가 오히려 속아서 아내와 자게 된 익토미 역시, 욕정에 탐닉해서 제 꾀에 넘어가 대가를 치른다.(Erdoes and Ortiz, pp. 372~374, Iktome sleeps with his wife by mistake) 이런 이야기들은 위계사의 속성을 잘 보여준다. 치누크(Chinook) 족 설화에서, 코요테는 손자에게 오이디푸스적인 질투와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노인으로, 늑대를 시켜 손자를 죽이고 손자며느리를 빼앗는다. 코요테는 공포와 죄책감이 너무 커서 몇 년 동안 정교하게 거짓으로 비통한 척 했다.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사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코요테는 손자와 자신을 동일시

28) S. Gordon, *The Encyclopedia of Myths and Legends*, Headline Book Publishing, London, 1994. p. 692.

29) 듀프(dupe)는 '속이는 자'와 반대로 '속임을 당하는 자, 잘 속는 자, 봉, 밥, 얼뜨기, 얼간이'를 말하는데, 뜻을 온전히 전달할 역어가 적당하지 않아서 부득이 원어 그대로 쓴다.

하려고 거의 미쳐간다. 계속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의 젊은 여성에 대한 열정은 우스운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 농부 여인을 속여 아이들을 죽여서 먹고, 그녀의 어린 딸을 강간하고, 긴 성기로 강을 넘어 교접하는 등 그는 성욕 과잉이다.³⁰⁾ 죽은 채하여 묻혔다가 자신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 위장해서 다시 나타날 정도로 넘치는 성욕의 소유자가 위계사다.³¹⁾ 코요테는 그들의 약해지는 영적인 힘의 근원에 대한 문화적인 고찰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욕구에 대한 문화적인 통찰력을 나타낸다. 위계담은 근친상간 같은 性的 제한과 사회의 규범적인 규제 등으로 쌓인 청중의 긴장을 정화해주는 작용도 한다.

보기 흉한 색이었던 코요테가 블루버드(Bluebird: 지빠귓과의 일종)의 처방에 따라 예쁜 색으로 변했는데, 변한 제 색깔을 보느라고 넘어지는 바람에 다시 얼룩이 묻어 흉하게 되었다.(Erdoes and Ortiz, pp. 346~347, *The Bluebird and Coyote*) 코요테의 부주의와愚蠢함을 보여준다.

코요테는 무엇이든 빌리고 훔치기만 하다가 결국 더 이상 인간을 괴롭히지 못한다.(Erdoes and Ortiz, pp. 352~354, *Turkey makes the Corn and coyote Plants it*) 이 이야기에서는, 칠면조가 문화영웅이고 코요테는 인간을 괴롭히는 바보, 멍청이다. 코요테는 사람이나 여우에게 여러 번 속는다.(Erdoes and Ortiz, pp. 359~361, *Coyote fights a lump of pitch*)

개구리만 댐의 물을 먹을 수 있었는데, 조개를 받은 개구리는 코요테에게 물을 마실 수 있게 한다. 코요테가 댐 밑에 머리를 박고 물을 오래 마셨지만, 개구리 떼는 댐에 뭔가 하고 있구나 생각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실제로는 코요테가 댐 밑의 땅을 파고 있었다. 그 바람에 댐이 무너져 개울, 폭포 등을 만들어져서, 지금 우리는 마실 물, 수영하는 물 등을 코요테 덕분에 누린다.(Erdoes and Ortiz, pp. 355~356, *Coyote takes water from the Frog People*) 여기에서 코요테는 문화영웅이다. 코요테가

30) M. Jacobs, *The Content and Style of an Oral Literature-Clackamas Chinook Myths and Tales*, Univ. of Chicago Press, Chicago, Illinois, 1959. pp. 138~139.

31) 주 8) p. 1124.

개구리족에게 한 종족이 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지만, 코요테의 행위에 처음부터 인간을 위하겠다는 의도는 없었다. 아마도 물을 독점한 개구리족이 미워서 그랬을 것이다. 북미 원주민의 설화에서는 코요테 뿐 아니라 비버(Beaver), 여우, 갈가마귀, 다람쥐, 칠면조 등 다양한 동물이 문화영웅 역을 한다.(Erdoes and Ortiz, pp. 343~357, *How Beaver Stole Fire from the Pines, The Raven, How the People got Arrowheads*)

여행하던 코요테가 괴물인 말[馬]에게 쫓기자 신에게 나무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나무 위로 숨었으나 잡히게 되었다. 코요테가 신에게서 마법 채찍을 얻어 말을 제압하고는, 이제 사람을 태우고 짐을 실어 나르라고 한다. 다시 사나운 개에게 쫓긴 코요테는 또 신에게서 돌맹이를 얻어 개를 제압하고는, 이제 인간의 가장 충성스러운 동물이 되라고 한다. 그를 잡아 얽맨 나무도 신에게서 센 힘을 얻어 나무를 찢고, 이후부터 나무는 인간의 땀감이 되도록 한다. 협곡 괴물도 신의 힘을 빌려 물리치고, 거대한 협곡도 나무를 가로지르고 건너갈 수 있도록 한다. 코요테가 거대한 엘크(Elk)마저 신이 준 돌칼로 제압하고, 엘크는 자신의 살을 음식으로, 가죽을 옷으로 인간에게 제공하게 한다. 야기 모습을 한 食人 괴물 또한 신이 준 칼로 물리치니, 이후 야기는 생명체에서 가장 무력한 존재가 되었다.³²⁾ 별 능력이 없는 약자로 등장하는 코요테는 오직 신의 도움으로 곤경을 헤쳐나간다. 코요테가 문화영웅으로 선택되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코요테는 북미 원주민에게 대표적이고 친근한, 자신들의 대리인이다.

위계로 개구리의 생식기가 없도록 만든 심술꾸러기 코요테(Erdoes and Ortiz, pp. 384~385, *Coyote and the two frog women*)지만, 코요테는 醫術 능력도 있고, 지혜로우면서도 명칭하기도 한 양면성이 있다. 코요테가 善한 면에서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굴 껍질에 숨은 다람쥐

32) M. Dove (Humishuma), *Coyote Stories*, Univ. of Nebraska Press, Lincoln and London, 1990. pp. 41~48. *Coyote Fights some Monsters*.

소녀가 아이들을 훔쳐 잡아먹는 올빼미 여인에게 심장을 먹혔지만 노랑밭 도요새가 시키는 대로 해서 다시 살아났다. 올빼미의 사악한 짓을 알고 있는 코요테가 잡힌 아이들에게 송진을 모아오게 한 후 위계로 올빼미를 태워 죽였다. 惡行은 항상 대가를 치르게 된다.³³⁾

코요테는 그의 오른팔이 왼팔과 싸우게 하기도 하고, 자신의 항문에게 오리가 잘 구워지는지 보고 누가 오면 쫓아버리고 했다가, 여우들이 고기를 다 먹어 버리자 코요테는 항문을 태우고 자신의 창자를 먹는다.³⁴⁾ 위계사-코요테는 여전히 정신적으로 아이인 상태로 살아가는데 이 점은 오른손과 왼손의 싸움으로 상징화된다. 위계사와 신체의 관계는 매우 특이한데, 아마도 입사의식과 재생이라는 제의성과 연관이 있을 듯싶다. 강 건너에 성기 묶기, 항문 태우기, 창자 먹기, 성 바꾸기 등은 위계사를 불안하게 해서 결국 세련된, 선한 개인으로 행동하게 할 정도로 위계사에게 충격을 준다.³⁵⁾

나. 한국의 위계담

위계사는 주로 상대를 속이지만 그 자신도 걸핏하면 속는다. 畏敬의 존재로 우리 민족에게는 신앙의 대상까지 되는 호랑이지만 어리석음이 회화되기도 한다. 두려움과 친숙함은 공존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를 잘 보여주는 설화 가운데 ‘호랑이와 토끼’를 보면, 호랑이의 貪食을 이용한 토끼가 빨강계 달걀 돌을 떡이라고 속여서 호랑이에게 먹인다든지,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고 속여 물 속에 넣은 꼬리를 넣어 얼어붙게 한다. 호랑이는 발을 가는 여자를 잡아먹으려다가 월경 중인 여자

33) Ibid., pp.51~59. Chipmunk and Owl-Women

34) P. Radin, 주 14) pp. 16~18. (라딘(P. Radin)이 채록한 위네바고(Winnebago) 族의 위계담은 나수호, “<토끼전>과 북미원주민 설화에 나타난 트릭스터 비교 연구”(서울대 석론, 2002)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35) Cf. 주 7) pp. 74~85. 陰核(ciitoris)에게 음식을 조리하는 화덕을 잘 지키고 있으라고 하는 식(위네바고 반대편의 Trobriand 설화, The White Cockatoo and the Clitoris)으로, 이런 특성은 어디에서나 마찬가지다.

의 벗은 몸을 보고 놀라 도망갈 정도로 우둔하고 겁이 많으며, 자기 허리에 매어 있는 방울 소리를 창자를 뜯어먹는 새로 알고 놀라 달아난다.³⁶⁾ 여기에 보이는 호랑이는 용맹스럽거나 신령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고 겁이 많다. 백두산 산신령이라 속인 한라산 수달에게 속아 도망간 호랑이, 함정에 빠진 호랑이를 구해 준 나그네를 도리어 잡아먹으려다 심판을 맡은 여우(혹은 토끼, 원숭이, 두꺼비 등등)에 의해 다시 함정에 빠진 은혜 모르는 호랑이, 꼬리로 물고기 잡는 호랑이,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달아 난 호랑이,³⁷⁾ 달걀, 자라, 쇠똥, 쇠꽃땡이 멍석, 지게 등에 눌러 죽음을 당하는 호랑이³⁸⁾ 등 상당히 많다.

호랑이와 맞닥뜨린 교활한 토끼는 조약돌 11개를 구우면서 10개라 하여 호랑이가 빨갱게 구운 돌을 먹게 만든다. 호랑이는, 조약돌이 분명히 열한 개인데 열 개라고 잘못 계산한 토끼의 실수를 행운 삼아 썸에서 빠진 딱한 개를 장 없이 먹다 들키는 창피도 당하지 않도록 얼른 집어삼키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 호랑이를 다시 만나자 이번에는 갈대 숲에서 참새를 먹게 해준다고 하여 속인 후, 토끼는 갈대에 불을 질러 호랑이를 놀라게 한다. 또 만났는데, 토끼는 물고기를 잡게 해 준다고 얼음장에 꼬리를 담그게 하는 바람에 기다리다 얼어붙은 호랑이를 마침내 잡히게 만든다.³⁹⁾ 토끼가 위계사로 나선 경우인데, 호랑이의 봉욕은 모두 탐욕이 빚은 결과다.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강자의 횡포에 대한 반감과 약자에 대한 동정이기도 하고, 탐욕은 불행한 결말을 가져온다는 경계이다. 그리고 교활함과 우둔함 중에서 전자가 승리하는 인간사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⁴⁰⁾

36) 「大系」, 2-9 pp. 29~30, 4-4 p. 942, 8-2 pp. 159~161.

孫晉泰, 「韓國民族說話의 研究」, 乙酉文化社, 1947. pp. 159~160. 虎兇說話 李家源, 「한국호랑이 이야기」, 東西文化社, 1977. 호랑이와 토끼. 등.

37) 曹喜雄, 「韓國動物譚 Index」, 文化人類學會, 文化人類學 5輯, 1972. pp.128~132.

38) 金光淳, 「慶北民譚」, 螢雪出版社, 1978. pp. 336~338. 孫晉泰, op. cit. 쇠똥에 자 빠진 법

39) 李家源, 주 36) 호랑이와 토끼

40) 許椿, 「說話에 나타난 호랑이의 特性—「한국 호랑이 이야기」 검토를 겸하여」, 洙

우둔, 탐식, 술수, 주술력 등을 다 가지고 금기를 자주 어기는 코요테와 호랑이는 상통하는 점이 많다. 특히 제 꾀에 잘 넘어가고, 위계를 쓰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호랑이가 널리 친근감을 주었기 때문에 해학과 풍자의 대상이 되었을 것인데, 코요테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만 문화영웅적인 면모는 코요테가 두드러진다. 이때 실패 여부와 무관하게, 어떤 상태를 중재하는 데는 속임수가 대단히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되니 자연히 위계가 중요한 수단이 된다.

토끼는 위계로 호랑이를 숲 속으로 유인해 불을 질러 태워 죽이고, 할머니를 놀리다가 잡혀서 솥에 넣어 삶길 상황에서 할머니가 방에 재워둔 아기를 대신 솥에 집어넣고, 집까지 태워먹게 만들었다.⁴¹⁾ 이때 토끼가 보여주는 인식 단계란 대단히 높은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의 웃음은 적절하게 억제된 유쾌한 웃음이라는 지적⁴²⁾은 타당하지만, 할머니와의 관계에서 생각해 볼 때는 설득력이 덜하다고 생각한다. 호랑이는 용맹의 근원이니, 호랑이 수염을 달게 된 뒤부터 남자는 비로소 위엄과 권위를 갖추게 되었다고 한다.⁴³⁾ 권력자로 대변될 수 있는 호랑이를 골려주는 약자는 자연스럽게 강력한 정화 작용을 한다. 다만, 강자의 표상이라 할 호랑이에 대한 위계가 아니고 노약자인 할머니를 골탕먹이고, 어린애를 자기 대신 솥에 삶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적절하게 억제된 유쾌한 웃음’이 나오기는 어렵겠다.

함정에 빠진 호랑이를 구해준 사람을 오히려 잡아먹으려 하자 소나무와 까마귀에게 물었으나 호랑이 편을 든다. 여우에게 묻자 당시의 상황을 재연해 보라 하여 다시 구렁이에 빠진 호랑이를 두고 간다.⁴⁴⁾ 여우가 위계사로 등장하는데, 여우도 호랑이의 먹이가 되는 약자기 때문에, 이 경우

上古典研究會, 「洌上古典研究」10輯, 1997. p. 84.

41) 任哲宰, 「韓國口傳說話1」, 平民社, 1990. pp. 97~99.

42) 金基鎬, “한국 트릭스터담 연구-호랑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영남대 박론, 2001. p. 184.

43) 李家源, 주 36) 호랑이 수염

44) Ibid., 背恩忘德한 호랑이

도 여우의 지혜를 사는 것이지 여우가 공명하다는 의미는 아니다.⁴⁵⁾

‘狐假虎威’(戰國策)처럼, 여우가 호랑이를 속여 이용하는 이야기에서는, 좋이나 썩이 어느 쪽이냐는 판단은 별개 문제다. 대체로 약자가 궁지에 몰렸을 때 위기를 벗어나는 방법이 위계다. 단순한 비유에 지나지 않기는 하지만, 한 예로 『莊子』⁴⁶⁾에서 까마귀를 속이는 동물도 여우다. 동양에서는 여우가 듀프인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도깨비도 호랑이와 상통하는 점이 있다. 도깨비는 심술궂고 짓궂어서 사람을 괴롭히며 귀찮게 하지만 때로는 도움을 주기도 하며, 사람이 도깨비의 단순하고 우직함을 이용하여 치부하기도 한다.

김 서방이 밭에서 돌맹이를 골라내는 것을 보고 김 서방을 골리려고 도깨비가 그 밭에다 돌맹이를 산더미같이 쌓아 놓았는데 김 서방이 이를 알고 일부러 큰 소리로 “누가 고맙게도 돌맹이를 쌓아 놓았지? 날 끝탕 먹이려면 닭똥이나 가득 쌓아 놓지.” 하자 도깨비가 그 날 밤으로 돌을 치우고 닭똥을 잔뜩 쌓아 놓는 바람에 김 서방네는 매년 푸짐한 수확을 거두게 되고,⁴⁷⁾ 개암 깨무는 소리에 놀라 달아나는 게 도깨비다.⁴⁸⁾ 도깨비는 이처럼 단순하며 겁 많고 건망증이 심하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설화의 도깨비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대체로 악을 징치할 때 나타나기 때문에 위계사의 대표적인 예인 코요테와는 좀 다르다.

사람은 도깨비의 심술과 조화에 괴로움을 겪지만 오히려 이를 역이용하여 부를 얻었듯이, 호랑이도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만 사람은 이를 역이용하여 치부하고 출세하였다. 도깨비가 개암 깨무는 소리 같은 사소한 일에도 놀라 겁먹고 도망가는 것처럼, 호랑이도 꽃감 같은 것에 놀라고 토끼에 속아서 꼬리를 강물에 담그고 물고기를 잡으려 한다든지 함정에 도

45) 주 40) p. 85.

46) 『莊子』(<鴉好談>): 鴉銜肉止樹上 狐過而欲得之 仰謂曰 君軀既壯 而羽亦澤 吾素聞君善歌 請奏一曲 鴉悅 張口欲鳴 未發聲而肉已落 狐疾取之 復語鴉曰 他日 有無故諷君者 君其慎之

47) 『大系』, 서울 도봉구 편, pp. 265~266.

48) 崔來沃, 『全北民譚』, 螢雪出版社 1982. pp. 63~65.

로 빠진다. 이러한 양면성은 특히 민담에서 도깨비와 호랑이가 같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이는 양자의 상관성을 보여주는 것이다.⁴⁹⁾

동명왕, 탈해, 鄭萬瑞, 鄭壽銅, 金先達, 토끼, 메추리 등을 트릭스터로, 호랑이와 양반을 듀프로 본 견해⁵⁰⁾에 대해, 신화의 주몽, 탈해, (창세신화에서 미륵과 꽃 피우기 내기를 한) 석가는 다 트릭스터(트릭스터 이야기 혹은 트릭스터 이야기의 변이 형태)가 아니고, 건국신화 자체의 필요성에 의해 트릭의 에피소드를 수용한 결과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 석가나 미륵은 처음부터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신격체이고, 트릭스터는 신격과 분명히 구별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트릭스터 진화에 대한 어떤 흔적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주몽·탈해·석가의 이야기는 트릭스터 이야기의 발달과 관련해서 상관성이 없다고 본다.⁵¹⁾ 위계사의 기능과 연관지어 볼 때 일리 있는 지적이지만, '위계담의 진화와 발달'에는 논의의 여지가 있겠다. 또 신적 위상에 자리한 위계사이기는 하지만, 다른 지역의 위계사도 우주 창조신은 아니고, 이는 주몽·탈해·석가도 마찬가지다. 민담과 신화는 현저히 다르고, 민담이 신화보다 후대 것이라면 민담에서 추출한 논리를 신화에 적용하기에는 무리일 것이다. 설화의 변이 과정으로 볼 때, 민담의 요소를 후세에 즉 신화에서 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

사회적으로 중간층이라 할 아전은 주로 자신보다 상류 계층인 양반층을 대상으로 위계사의 면모를 보이는데, 서민은, 고의든 아니든, 동류 계층도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 누구를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아전담은 <속음의 축>을, 서민담은 <속임의 축>을 초점화하는 것이고, 아전이 빚어내는 웃음이 쓴웃음이라면⁵²⁾ 아마 서민담이 빚어내는 웃음은 진지한 웃음'이라는 지적⁵³⁾은 참고할 만하다. 그러나 서민담의 웃음을 진

49) Cf. 許椿, “說話와 古小說의 虎”, 『연세어문학』 18輯, 1985. pp. 238~239.

50) 金烈圭, 『韓國文學史』, 探求堂, 1983. pp. 385~416.

51) 金基鎬, 주 42) pp. 157~166.

52) Op. cit., p. 414.

53) 李漢吉, “속임/속음의 서사구조-트릭스터(Trickster) 유형을 중심으로-”, 서강대 석론, 1988. pp. 62~63.

지한 웃음이라 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서민담은 김 선달, 정수동 등이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처럼 미소나 깔깔거리는 웃음을 포함하지 만, 서민담의 상당 부분이 역시 통쾌한 풍자와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서민담의 웃음이 아전담과 특별히 다르다고 하기 곤란하다고 본다. 그런데 전국에 광포되어 있는 '332-1 여자 난처하게 하는 내기 (하문 보기, 입맞추기 등)', '332-4 초상났다고 부의금 거두기', '333 엉뚱한 짓으로 여자 속여 이용하기'(大系,의 분류. 이하 같음.) 등은, 대부분 서민을 대상으로 엉뚱한 짓으로 상대를 곤경에 빠뜨리는 행위라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단순히 지적 우월감을 과시하거나 약간의 이득을 취하는, 이 경우의 웃음이 일반적인 웃음에 해당할 것이다.冬至에 팔려고 쭈어 놓았다가 날이 풀려서 쉬어 버린 이웃집 할멈의 팔죽 네 동을 기지로 다 필아 준 김 선달⁵⁴⁾처럼 이들의 행적은 매우 다양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사회적인 데 치중하여 자료를 해석하는 일도 유의해야 할 점이 많다는 뜻이다.

잡보 행실을 하는 건달형 인물은, 김 선달, 정만서, 정수동, 방학중, 태학중, 진평구 등으로 대표된다. 이들은 직설적인 지적보다 주로 語戲를 이용하여 윗사람을 비판하여 향유층의 代償 심리를 만족시켜주고 있다. '거짓말 해보라는 양반 속여서 돌려주기', '윗사람 욕보인 아랫사람'의 대표적 인물이라 하겠다. '기생 피어 동침한 방학중'(大系, 7-7), '여자의 밑을 구경시켜 준 방학중'(大系, 7-10), '김선달과 하문이 둘인 여자'(大系, 5-6) 등 같은 이야기는 장난이라 할 수도 있지만, '방학중이와 떡보리'(大系, 7-6)의 경우는, 하인인 방학중이 주인을 회롱하고 나아가 장인, 장모, 처남 등을 속여서 죽인다. 이처럼 꽤 공격적이다.⁵⁵⁾ 방학중은, 동네 사람들이 먹

54) 팔죽 먹으러 온 손님 앞에서 김 선달이 할멈에게 조그만 소리로 물었다. “주인님, 초도 좀 칠까요?” 그러자 할멈이 “사람 봐 가며 쳐야지, 아무나 치나?” 하고 답했다. 손님이 이를 듣고 그 초 좀 많이 쳐 달라 한 후, 양반 행세 하느라 맛도 안 보고 초를 더 쳐서 먹은 후 오랜만에 팔죽다운 팔죽 먹어 본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 쉬어 버린 팔죽을 다 팔았다.

55) 제주의 변인태, 양장의 같은 인물은, 본토의 김 선달, 정수동, 방학중 등과 비교해 볼 때, 냉소라기보다 밝은 웃음을 풍긴다. 상전을 욕보여도 궁지로 몰지 않고

을 것이 없어서 찢고 있는 떡 보리를 빼앗고 남의 아이를 방아확에다 넣는 짓까지 하니, 이 경우의 파괴는 화적 같은 짓이다. 파괴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럴 재간도 없다.⁵⁶⁾ 양반에 대한 공격도 뾰족한 敵意를 보인다. 그래서 그런지 김 선달, 정만서, 방학중 등이 다 자기보다 뛰어난 상대를 만나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이제 ‘狂人(『靑邱野談』 卷二 逐官長知印打頓)’, ‘地獄巡禮(『攪睡襟史』, 督債見辱)’, 鳳(『攪睡襟史』, 知奸飾愚)’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보겠다.⁵⁷⁾

호남의 한 원이 성미가 조급하고 형벌이 가혹하자, 하루는 나이 어린 통인이 원의 뺨을 냅다 갈겼다. 노발한 원이 다른 통인에게 저놈 잡으라고 명했으나 아무도 거행하지 않자, 분을 못 참은 원이 고함을 지르며 거동이 해괴하고 언어가 대중이 없었다. 원의 자제가 나와 황급히 나와 병환이 나신 듯하다고 하자 더욱 화를 못 이겼다. 아무도 자기 말을 아무도 안 믿으니 이후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다가 미친 병이 되었다. 소문을 들은 감사가 원을 파직하였다.(狂人) 자신들에게 혹독한 상전을 제거하는 영악한 아전들의 위계에 속절없이 당하는 양반을 그렸다. 아전의 행동은 권세(강자)에 대한 반항이지만, 명분 없는, 이익을 앞세운 일이다. 위계사의 일반적인 행위처럼, 가혹한 원에게 시달리는 백성을 돕겠다는 것을 의도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권력이나 특권을 너무 많이 가진 자를 낮춤으로써 평등하게 한다⁵⁸⁾는 목적을 온전히 이룬 셈이다.

한 상놈이 어리석고 인색한 생원에게 돈을 빌렸는데 빚 독촉이 매우 심했다. 이에 상놈이 흠이불을 뒤집어쓰고 눕고 아내는 곡을 하였다. 생원

여유 있는 상황을 만드는 데, 불박이라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본다.(cf. 許椿, “濟州 說話 一考察”, 濟州大 國文科, 『國文學報』 13輯, 1995. pp. 173~179)

56) 趙東一, 「人物傳說의 意味와 機能」, 嶺南大學校 出版部, 1979. pp.279~294. passim.

57) 각 편 제목은 주 4)에 따랐다. 주 53)에서 각각 아전담, 서민담, 양반담(동일 신분-양반 대 양반, 서민 대 서민-일 경우를 양반담으로 분류한 것(cf. p. 65)은 제론의 여지가 있지만)으로 나누어 검토한 바 있다.

58) Orin E. Klapp, “The Clever Hero”,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67:263, 1954. p.30. (나수호, 주 34) p. 14. 再引)

대 하인이 살펴보고 고하니 생원은 혀만 차고 말했다. 어느 날 상놈이 홀연히 찾아와 재생했다고 생원에게 문안을 드리니, 생원이 상놈에게 鄴都를 구경했냐고 물었다. 지옥에서 보니 대부인 마님이 자기 아버지와 함께 살더라고 꾸며서 이야기하여 빚을 탕감 받았다.(地獄巡禮) 여기에서는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다.

上番한 시골의 한 군사가 평소 남을 잘 속였다. 하루는 닭전으로 가서 수탉을 어루만지며, 닭전 주인에게 이 봉을 팔지 않으려냐고 물었다. 주인이 20냥을 부르자 군사는 곧 그 닭을 사서 형조에 가서 진상했다. 형조에서 엄문하니 군사는 울면서 애원했다. 이에 형조에서 닭전 주인을 잡아와서 닭전 주인을 책망했다. 형조에서 닭전 주인에게 50냥을 받아 군사에게 주었다.(鳳) 여기에서 속은 것은 닭전 주인이 아니라 형조다. 이면적 즉 주체적인 측면에서는 서민 대 양반의 갈등을 그린 이야기⁵⁹⁾라고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닭전 주인에게 손해를 입힌 군사의 행동이 전적으로 환영받기는 어렵겠다. 두려움의 대상인 官-형조를 속여서 청자에게 일종의 정화작용을 하지만, 실질적인 손해는 닭전 주인이 보았기 때문이다. 물론, 처음부터 어리숙하게 보인다고 행동한 군사를 속인 것에 대한 옹보일 수도 있다.

3. 한국 위계담의 특성

위계사는 우둔하고 무모해서, 자신도 듀프가 되어 상처를 받으니 자연히 친근감을 주게 된다. 자신이 善/惡, 美/醜 등의 상반된 속성을 지니고 성공 여부를 떠나 중재역을 하기 때문에, 청중의 긴장을 정화해 주는 작용을 한다.

이중성 즉 모호성, 역설, 모순어법은 위계사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를 語戲를 이용해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우다. 어희는 무력이 아닌 지략이기 때문에 청중도 쉽게 받아들인다. 지략으로 힘 센 상대를 속이거

나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일은 덜 파괴적이면서도 효과는 더 뛰어나기 때문이겠다.

위계사의 문화영웅적인 측면은 같겠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면모가 자주 나타나지 않는다. 아마도 전해지는 신화가 많지 않은 탓일 게다. 또 성에 개방적이지 않은 사회라 그런지 성적인 금기를 위반하는 일은 찾기 어렵다.

북미 원주민에게 친밀감을 코요테와 달리, 호랑이는 우리에게 경외감이나 공포감을 준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강자와 권위의 표상인 호랑이가 가해자보다는 주로 듀프로 등장한다.

우리나라의 위계사라 할 사람들은, 서민층을 상대로 이익을 피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상전이나 양반에 대한 풍자와 비판이 두드러진다. 이는 계층이 뚜렷한 당시의 사정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다. 특히 조선조는 士民의 사회적 차이가 커서 자연히 이런 방법을 취했다고 본다. 중간층이라 할 방자, 아전, 기생, 식객, 광대 등을 대표적인 예로 보일 수 있다. 이는 후기 사회의 면모니 북미 원주민 설화와의 직접적인 대비에는 문제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위네바고 족을 비롯한 북미 원주민의 경우는 조선조 같은 신분 계층 차이가 거의 없어서인지, 각 부족 내에서의 계층적 갈등은 보이지 않는다.

III. 結論

위계사는 문화영웅 역할을 하기도 하는 이중적 성격의 경계인이다. 위계사는 남을 속여 이득을 얻지만, 탐식과 넘치는 성욕을 주체하지 못해 자신이 쳐 놓은 덫에 자신이 걸리는 일이 많아 듀프 역을 하기도 한다. 자신의 욕심을 못 이기고, 기본적으로 탐식과 넘치는 성욕을 주체하지 못해 자신의 꾀에 오히려 속는 점은 같다.

설화의 내용은 인류 공통적인 것이지만, 민족(부족)이나 지역 상황에

맞게 변용되어 나타난다. 어떤 동물이나 인간상에 대한 好否에 차이가 나는 일도 수용 정서와 사회 상황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설화에 나타난 위계사를 통해 이 차이점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위계사가 차지하는 특수성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설화와 설화의 영향을 받은 고소설에서 중재자 역을 하는 위계사는 서사문학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화의 위계사가 중세에 와서 어떤 형상으로 남았고 작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는 일은, 작중인물에 주제가 모이는 중세의 서사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먼저 본격적으로 위계사 연구가 시작된 북미 원주민 설화를 바탕으로 대표적인 위계사인 코요테의 여러 행적을 검토하고, 다음에 우리나라 설화의 호랑이와 문헌설화 몇 편을 두고 그 성격을 대비해 보았는데, 세부적인 분석보다 전체적인 맥락을 살폈다. 코요테는 그들에게 친근감을 주지만, 호랑이는 우리에게 친밀감을 넘어 경외감이나 공포감을 준다. 그러면서도 호랑이가 위계사로, 가해자보다는 주로 듀프로 등장하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호랑이는 권위 있는 강자를 상징하지만 탐욕을 주체하지 못해 제 꾀에 속기도 잘 해서, 위계사의 속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흔히 전형적인 위계사로 보는 코요테 또한 자주 속는다. 코요테의 문화영웅적 측면이 우리나라의 호랑이나 토끼에게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전해지는 신화가 풍부하지 못한 상황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신화에서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인간에게 문화적 혜택을 주지만, 민담에서는 회화화하여 단순한 장난꾸러기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데 근친상간 같은 性的인 금기 위반을 통해 정화작용을 일으키는 일은 보기 어렵다. 우리의 고려조는 불교 사회, 조선조는 유교 사회라 그런지 성적인 면에서 크게 放逸하지는 않다.

문헌설화에서도 아전이나 서민은 지략으로 상대를 공격하고 목적을 이룬다. 이들은 단순한 웃음보다 풍자를 통해 권세 있는 상류층을 비판한다. 이는 아마도 북미나 유럽보다 신분의 차이, 士民 즉 班常의 계층이 더 뚜렷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중간층의 신분이라 할 방자, 아전, 기생, 식객, 광대 등은, 이중성이라는 위계사의 특성과 맞물려서 그 특성을 잘 보여준

다. 위네바고 족을 비롯한 북미 원주민의 경우는 조선조 같은 계층 차이가 크지 않아서인지, 각 부족 내에서의 계층적 갈등은 보이지 않는다. 김선달, 방학중 등에서 보듯이, 서민층을 상대로 잔인할 정도의 위계를 써서 이익을 취하기도 하는데, 語戲를 이용하는 일이 잦다.

오래전부터 필자는 우리나라 설화와 고소설에서 차지하는 위계사의 역할과 위상 문제를 과제로 삼아 몇 편의 글을 썼으나, 여러 사정으로 이를 더 깊이 천착하지 못했다. 근래 와서 위계사-위계담을 대상으로 세부적인 정리와 분석이 속속 이루어지는 일은 꼭 고무적이다. 북미의 다른 설화 자료를 추가하여, 이 글에서는 우선 우리 설화에 나타난 위계사의 특성을 전반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했는데, 제약된 지면 관계로 상당 부분 생략할 수밖에 없었다. 유럽, 남미, 중국, 일본 등과의 대비, 세밀한 분석, 신화와 민담 자료의 혼효 문제 정리 등 미진한 부분은 후속 정리를 기약한다.

<參考文獻>

「莊子」

金光淳, 「慶北民譚」, 螢雪出版社, 1978.

金基鎬, “한국 트릭스터담 연구-호랑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영남대 박론, 2001.

金東旭, 「韓國歌謠의 研究」, 乙酉文化社, 1961.

金烈圭, 「韓國文學史」, 探求堂, 1983.

나수호, “<토끼전>과 북미원주민 설화에 나타난 트릭스터 비교 연구”, 서울대 석론, 2002.

孫晋泰, 「韓國民族說話의 研究」, 乙酉文化社, 1947.

——— 語文研究室 編, 「韓國口碑文學大系」,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1989.

李家源, 「한국호랑이 이야기」, 東西文化社, 1977.

- 李佑成·林煥澤 編譯, 「李朝漢文短篇集(上, 中, 下)」, 一潮閣, 1973~1978.
- 이진성, 「그리스 신화의 이해」, 아카넷, 2004.
- 李漢吉, “속임/속음의 서사구조-트릭스터(Trickster) 유형을 중심으로-”, 서강대 석론, 1988.
- 任哲宰, 「韓國口傳說話1」, 平民社, 1990.
- 趙東一, 「人物傳說의 意味와 機能」, 嶺南大學校 出版部, 1979.
- 曹喜雄, “韓國動物譚 Index”, 文化人類學會, 文化人類學 5輯, 1972.
- 崔來沃, 「全北民譚」, 螢雪出版社 1982.
- 許椿, “說話와 古小說의 虎”, 「연세어문학」 18輯, 1985.
- , “古小說의 人物 研究-仲裁者를 中心으로-”, 연세대 박론, 1986.
- , “濟州島 巫俗神話의 文化英雄考”, 「濟州島言語民俗論叢」, 濟州文化, 1992.
- , “濟州 說話 一考察”, 濟州大 國文科, 「國文學報」 13輯, 1995.
- , “說話에 나타난 호랑이의 特性—「한국 호랑이 이야기」 검토를 겸하여”, 洙上古典研究會, 「洙上古典研究」 10輯, 1997.
- Babcock-Abrahms, Barbara, A Tolerated Margin of Mess: The Trickster and His Tales Reconsidered, *J.F.I.* Vol.XI, 1974.
- Dove, Mourning (Humishuma), *Coyote Stories*, Univ. of Nebraska Press, Lincoln and London, 1990. pp.51~59. Chipmunk and Owl-Women
- Erdoes, Richard and Ortiz, Alfons. selected and edited, *American Indian Myths and Legends*, Pantheon Books, New York, 1984.
- Gordon, Stuart, *The Encyclopedia of Myths and Legends*, Headline Book Publishing, London, 1994.
- Greenway, John, *Literature among the Primitives*, Folklore Associated, Hatboro, Pennsylvania, 1964.
- Hathaway, Nancy, *The Friendly Guide to Mythology*, 2002. (신현승

유희김, 「세계 신화 사전」, 세종서적, 2004)

- Jacobs, Melville, *The Content and Style of an Oral Literature-Clackamas Chinook Myths and Tales*, Univ. of Chicago Press, Chicago, Illinois, 1959.
- Jobes, Gertrude, *Dictionary of Mythology, Folklore and Symbols*, The Scarecrow Press, Inc. 1961.
- Kirk, G. S., *Myth-its meaning and functions in ancient and other cultur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0
- Leach, E., *Social Anthrop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 Leach, Maria. ed., *Standard Dictionary of Folklore, Mythology and Legend* (Volume 2), New York, Funk&Wagnalls Company, 1950.
- Lévi-Strauss, Claude, "The Structural Study of Myth",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1955.
- · 김진옥 譯, 「構造人類學」, 종로서적, 1983. 등.
- Radin, Paul, *The Trickster: A Study in American Indian Mythology*, Greenwood Press, 1956.
- Radin, Paul, *The World of Primitive Man*, New York, 1957.
- Stonequist, Everett V., *The Marginal Man: A Study in the Subjective Aspects of Culture Conflict*, Univ. of Chicago, 1930.
- Thompson, Stith. *The Folktale*, The Dryden Press, New York, 1946(AMS Press, 1979).

<Abstract>

A Study on Trickster Stories

Heo Chun

The study aims to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trickster, a tiger, in particular, by comparing it with the most popular Native American trickster, a coyote. How social factors affect the status of trickster is analyzed. The trickster is ambivalent. In many cultures, tricksters and culture heroes are often combined. On the other hand, tricksters are cunning, foolish and greedy, so they outwit themselves.

Since a tiger stands for the powerful, Korean people are in awe of a tiger. However, a tiger acts as a dupe as a typical trickster in Korean folktales. Although the trickster figure in western culture is engaged in violating taboo such as same-sex practices and incest, the trickster in Korea rarely exhibits this trait. This can be related to underlying Confucian and Buddhist beliefs.

A unique feature of Korean tricksters is found in the middle class of society - servant, jester, and *gisaeng*. They criticize the upper class by satirizing authority. Korea society is more stratified than western societies such as North America and Europe. To survive in the society, the middle class of society shows similar duplicity as the trickster has.

- Keywords: trickster, dupe, culture hero, greedy, sexual desire, pun, satire, critical character